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 및 대상 지역 검토*

오수대** · 이수룡***

- I. 서론
- II.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
- III.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가능성
- IV.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만 운영하는 단방설치형, 남북한의 공동설치형, 제3국도 함께하는 다국 참여형, 무역·관광·생산이 결합된 복합형 등이며, 공동설치형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시장에 적합하고, 다국 참여형은 시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설치 장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비무장지대는 철원, 북한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남한지역은 인천 교동도가 바람직하며, 이들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은 개성공업지구는 '복합형', 철원과 교동도는 '복합형다국적형'으로 검토되었다.

남북한 공동시장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이다. 북

한은 중국에서 진행되는 호시무역에는 소극적이지만 북한 내 호시무역에는 참여한 적이 있고 북한 주민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는 호시무역구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동시장의 위치를 북한이 수용 가능한 곳으로 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감안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공동시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대북 제재가 해소 또는 완화되는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국 참여형 모델을 지향하고, 관광 및 생산거점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공동시장 모델, 호시무역, 접경지역, 비무장지대, 남북경제협력

* 이 논문은 2019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연구원,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I. 서론

지금까지 남북한은 상품 교역과 공단 운영의 형태로 경제교류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접경지역에서 공동시장을 운영한 경험은 없다. 그러나 남북한의 공동시장 운영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물론,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출발점인 동시에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접경지역 공동시장의 일종인 호시무역(互市貿易)¹ 제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와 북한의 호시무역에 대한 태도 및 남북 접경지역의 공간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을 검토한다.

중국의 호시무역에 관한 연구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당대(唐代), 명대(明代), 청대(清代) 등 주로 역사 속의 호시무역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남북 접경지역 연구는 최근 들어 접경지역의 공간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봉(2017),² 김형수·이필구(2017),³ 강민조·임용호(2018),⁴ 임을출(2018)⁵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연구방법은 중국의 호시무역에 관한 법령 등 1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 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중국 국무원(國務院), 상무부(商務部), 해관총서(海關總署)⁶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이며, 주로 활용한 법령은 「변경소액무역

¹ 호시무역은 “육로변경 20km 이내의 변경지역 변민(邊民)이 정부가 승인한 개방지점 혹은 지정된 정기시장에서 규정된 금액 혹은 수량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상품교환 활동”을 말한다(「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

² 김영봉, “한국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7).

³ 김형수·이필구, “마르티네스의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2017).

⁴ 강민조·임용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남북 공동시장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2018).

⁵ 임을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DMZ·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2018).

⁶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호시무역의 주무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임시관리방법」,⁷ 「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⁸ 및 각 지방정부가 제정한 호시무역구 관리법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 검토는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와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호시무역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한 호시무역구 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고, 중국 변경지역의 호시무역 환경이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환경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나라 때부터 호시무역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 14개국⁹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육지 구간의 국경선이 22,800km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에 비해 경제 수준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중국은 공산품을 팔고 상대방 국가의 농수산물이나 특산품을 구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호환성이 호시무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인문·역사적인 요인도 호시무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지역에서 주변국과의 인문·역사적인 유대가 가장 강한 곳은 남부지역이다. 중국의 남부지역에는 태족(傣族), 경족(京族), 한족(漢族) 등 13개 민족이 국경을 초월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풍습, 언어와 문자, 종교, 생활습관 등이 비슷하며 결혼 등으로 혈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¹⁰ 이러한 상품의 호환성과 인문·역사적인 유대는 남북한 사이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는 남북한의 공동시장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호시무역을 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중·조 호시무역구(中·朝 互市貿易區)」를 설치한 후 북한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호시무역 실태 분석을 통해 북한의 호시무역에 대한 태도를 유추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⁷ 중문명은 “边境小额贸易暂行管理办法”이며, 1984년 12월 20일 대외경제무역부가 반포하였다.

⁸ 중문명은 “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이며, 중국 해관총서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6년 3월 29일 해관총서령 제56호로 반포하여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⁹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중국과 육지 접경을 이루고 있다.

¹⁰ 徐志尧, “中国边民互市贸易比较,” 『经济研究参考』, 2002年 第54期(總 第1630期), 黑河市政府研究室, pp. 6~7.

II.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

중국의 호시무역은 한나라 때 시작되어 청나라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1949년 중국이 수립된 이후 일시 중단되었으나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부활하였다. 1984년 12월 제정된 「변경소액무역입시관리방법」에 호시무역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1996년 3월 29일 호시무역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변경지역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법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여 호시무역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윈난성(雲南省),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등 8개의 변경지역 성(省) 및 자치구에 최소 72개 이상의 호시무역구가 설치되어 있으며,¹¹ 랴오닝성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성·자치구에서는 호시무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¹²하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호시무역의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변경지역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주변국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강화와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상품 교역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동질성 강화 등 무형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1996년 제정한 「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과 단둥(丹東), 훈춘(琿春), 수이펀허(綏芬河), 만저우리(滿洲里), 휘얼귀스(霍爾果斯), 동싱(東興) 등 대표적인 호시무역구 6개를 관리하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과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중국의 호시무역구 설치 및 운영 형태 등 제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¹¹ 중국 해관총서는 2010년 중국의 호시무역구를 지린성 2개, 헤이룽장성 1개, 네이멍구자치구 1개, 신장웨이우얼자치구 2개, 시짱자치구 4개, 윈난성 37개, 광시좡족자치구 25개 등 총 72개로 집계하였다(<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425/359096/index.html>, 검색일: 2019.4.30.).

¹² 중국 북부지역인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우 2010년도에는 만저우리(滿洲里)에만 호시무역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만저우리 외에 얼렌하오터(二連浩特), 츠크(策克), 헤이산터우(黑山頭), 만두라(滿都拉) 등 5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1. 호시무역구 설치 형태

호시무역구의 설치는 ① 국경선 부근의 육로와 국경하천(界河) ② 변경지역 성(省)·자치구 정부의 비준 ③ 명확한 경계선(界線) ④ 세관 감독 및 관리시설이 세관의 요구에 부합할 것 등 4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 제2조).

단둥(丹東) 호시무역구는 중국지역 압록강변에 설치된 「단방형」이며, 전시교역, 창고물류, 정차검사, 합동검사, 관리봉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훈춘(琿春) 호시무역구도 러시아 접경의 중국지역에 설치된 단방형이며, 교역시장 3개와 500여 개의 상품 진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수이펀허(绥芬河) 호시무역구는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설치된 「쌍방형」이며,¹⁵ 무역, 관광, 물류, 가공 등의 기능이 일체화된 초국경 종합경제구이다.¹⁶ 1997년 5월 개설되어 중국 지역에서만 운영되다가 1999년 6월부터 중·러 국경선 양쪽에서 쌍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⁷

만저우리(滿洲里) 호시무역구는 1996년 단방형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4년 8월 쌍방형으로 발전하였으며,¹⁸ 수출가공구, 종합산업원구(綜合產業園區), 상무역관광구(商貿易旅遊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휘얼귀스(霍尔果斯) 호시무역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경선이 통과하는 지점에 공동으로 설치한¹⁹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霍尔果斯國際邊境合作中心) 내에 있다. 이 지구에서는 호시무역과 함께 변경소액무역, 관광무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동싱(東興) 호시무역구는 2011년 3월 21일 중국-베트남의 국경하천 베이룬허(北淪河) 동안(東岸)에 단방형으로 설치되었다.²⁰ 국제해산품시장, 오금기전성(五金機電城), 건재시장, 소상공시장 등이 있다.²¹

¹³ 중국 바이두바이크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6.13.).

¹⁴ 중국 바이두바이크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6.13.).

¹⁵ 총면적은 4.53km²이며, 중국측 1.53km², 러시아측 3km²이다.

¹⁶ 중국 바이두바이크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6.5.).

¹⁷ 중국 바이두바이크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6.5.).

¹⁸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검색일: 2019.6.5.).

¹⁹ 중국과 카자흐스탄정부는 2004년 9월 24일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당시 채택된 합의서의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建立 ‘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的框架协议”이다.

²⁰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검색일: 2019.6.5.).

²¹ 중국 바이두바이크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6.13.).

2. 호시무역구 운영 형태

호시무역구의 운영 주체는 ① 중국의 변경지역 거주민 ② 상대방 국가의 변경지역 거주민 ③ 중국 변경지역의 상점과 공급판매 협력사이다(「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 제3조). 관리기구는 호시무역구관리위원회와 세관, 출입경검사검역, 변방검사, 변경무역관리, 호시무역시장 입주 등이 있다.

출입절차는 중국의 변경지역 주민은 「변민호시무역증(邊民互市貿易證)」을 이용하여 호시무역구를 비교적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² 훈춘, 수이펀허, 만저우리 호시무역구의 경우 러시아인들은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으며, 단체관광객의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휘얼귀스 호시무역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은 물론, 제3국인도 절차를 밟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신장호시무역관리방법」 제4조, 제5조, 제12조).

호시무역구 운영방식은 단둥 호시무역구는 ① 정부가 주도하고 ② 시장화 방식으로 하며 ③ 세관이 감독하는 모델로 관광상업무역(旅遊商貿), 창고물류, 수출가공 등이 일체화된 형태이며,²³ 단둥시장을 조장으로 하는 ‘영도소조’²⁴가 조직되어 있다. 훈춘 호시무역구는 호시무역구와 수출가공구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쌍구발전(雙區發展)과 관광 및 무역의 ‘쌍성장(雙成長)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경제합작구, 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3구 합일’(3區合一)을 지향하고 있다.²⁵ 만저우리 호시무역구는 상무역, 관광구역, 공업구역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²⁶ 동싱 호시무역구는 1선 호시무역, 2선 변경소액무역, 3선 일반무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면세 범위는 1996년 법 제정 당시에는 1,000위안 이하였으나(「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 제5조), 2008년 면세 범위가 8,000위안으로 상향되었으며,²⁷ 호시무역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제한된다.²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는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²² 단둥, 훈춘, 동싱은 호시무역구관리법에 「변민호시무역증」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²³ 단둥시 <<http://www.dandong.gov.cn/>> (검색일: 2019.6.5.).

²⁴ 중문명은 “丹東中朝邊民互市貿易區領導小組”이며, 단둥시장이 조장이고 부시장, 市外經貿국장, 단둥변경경제합작구 관리위원회 주임, 단둥해관장, 단둥출입경檢檢疫국장, 省 對朝黃金坪威化島經貿구 세무국장, 단둥국문만호시무역관리유한공사 동사장(董事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²⁵ 훈춘시 <<http://www.gov.cn/>> (검색일: 2019.6.13.).

²⁶ 국무원 <<http://www.gov.cn/>> (검색일: 2019.5.26.).

²⁷ 이 조치의 중문명은 “关于促进边境贸易发展有关财税政策的通知”이다.

²⁸ 중국 당국은 2010년 5월 호시무역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일상 생활용품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의 중문명은 “关于边民互市进出口商品不予免税清单的通知”이다.

〈표 1〉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

구분	주요 내용
설치	설치 조건 국경선에서 20km 이내 육로와 국경하천 국경지역 쑤·자치구 정부 승인 명확한 경계선 설치 및 세관 감독시설 구비
	설치 형태 단방설치형: 일방의 접경지역에만 설치(단둥, 훈춘, 동싱) 쌍방설치형: 쌍방의 접경지역에 설치(수이펀허, 만저우리) 공동설치형: 쌍방이 합의하여 공동설치(휘얼귀스)
운영	참여 주체 국경선 20km 이내 거주 중국 변민과 기업, 상대국 변민
	관리 기구 관리위원회, 세관, 검사검역국, 변방검사대는 공통 '영도소조'는 단둥과 동싱 호시무역구에만 설치
	출입 절차 중국 변민은 변민호시무역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출입 베트남은 본국이 발급한 입경통행증, 변경통행증 이용 출입 휘얼귀스 호시무역구는 제3국인도 절차를 밟아 자유롭게 출입 가능
	운영 방식 단둥: 전시교역, 창고물류, 정치검사, 합동검사, 관리봉사구역으로 구성, 정부 주도 하에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 훈춘: 쌍구 발전(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쌍성장(관광, 무역), 3구 합일(변경경제합작구, 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수이펀허: 무역, 관광, 상무, 전시, 금융, 물류, 가공 등이 일체화된 초국경 종합경제구 만저우리: 수출가공구, 종합산업원구, 상무역관광구로 구성 휘얼귀스: 3종의 무역(호시무역, 변경소액무역, 관광무역)과 4개의 기능(무역, 가공, 창고, 관광)이 일체화 동싱: 해산품시장, 복장성, 건재시장, 유럽풍 상업가 등으로 구성 1선 호시무역, 2선 변경소액무역, 3선 일반무역
	면세 범위 초기에는 1인당 하루 1,000위안까지 면세 2008년부터 1인당 8,000위안으로 확대
거래 상품 인접국에서 생산된 생활용품으로 한정(2010년) 중국은 주로 공산품이고, 상대국인 러시아는 해산품·식품류, 베트남은 농부산물, 해산물 등 국가별로 상이	

자료: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호시무역관리법과 실태를 종합하여 작성

III.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가능성

남북 접경지역의 공동시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이다. 그리고 남북 접경지역이 중국의 변경지역처럼 공동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호시무역에 대한 태도와 남북 접경지역의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가능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1. 북한의 호시무역에 대한 태도

가. 북한 내 호시무역에는 참여: 함북 나선시 원정리²⁹

북한은 1997년 6월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의 두만강변에 ‘북·중 호시무역구’를 개설하여 1999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운영하였다.

개설 초기에는 매주 화·수·목·금요일 등 4일씩 개장하였으며, 북·중 모두 각각 150명씩 호시무역에 참여하였다. 거래 물품은 중국은 쌀, 밀가루, 옥수수 등 양식과 담배, 술, 사과, 귤, 신발, 모자, 등산복, 운동화 등 생활용품 위주였고, 북한은 말린 오징어, 문어, 새우, 가리비, 해삼, 명태 등 해산물과 편직물 등 수공업품이었다.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호시무역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하루 이용자가 많을 때는 북한과 중국이 각각 500여 명에 달하였고, 교역액도 40만~60만 위안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으로 호시무역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감소함에 따라 호시무역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들이 달러와 엔으로 중국 상품을 구입하면서 북한의 외화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북한 당국은 호시무역구에서의 외화사용을 금지하였고 호시무역구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북한 내에 설치된 호시무역구에는 직접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았지만, 호시무역을 통해 외화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중국지역 호시무역에는 소극적: 창바이, 투먼, 단둥

중국은 북한과의 호시무역을 위해 2008년 지린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2010년 지린성 투먼시, 2015년 랴오닝성 단둥시에 호시무역구를 설치하였다. 창바이 호시무역구는 중국의 주도로 창바이조선족자치현의 국경통상구 근처에 설치되었으며, 저장성(浙江省) 이우시(义乌市) 상인들을 유치하였으나 북한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제대로 진행해 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투먼 호시무역구는 중국의 제안³⁰으로, 2010년 10월 13일 투먼세관과 광장 사이에 1만㎡ 규모로 개설되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개장 당일 수산물 100톤을 거래한 이후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중단되었다.

²⁹ 妍丁, “在珲春看中朝互市贸易,” 『综合性双』 1998年 第2期(總 第39期), pp. 10~11.

³⁰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검색일: 2019.6.5.).

단둥 호시무역구는 2015년 10월 단둥시 압록강변에 설치되었다. A·B·C구역 가운데 C구역은 북한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북한은 2014년 10월 17일 착공식에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홍길남과 주(駐)선양 총영사 김광훈이 참석하였고, 2015년 10월 15일 개소식에 선양 부총영사 김영남이 참석하는 등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북한 내에 설치된 원정리 호시무역구와는 달리, 중국지역에 설치된 호시무역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지역에 설치된 호시무역구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경우 체제위협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 국경 하중도(河中島) 내 호시무역에는 적극적: 함북 유다도

북한이 호시무역구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곳은 함경북도 경원군 유다도(柳多島)이다. 북한은 2015년 10월 8일 유다도 일부 지역에 ‘경원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으며,³¹ 2016년 6월경에는 중국 훈춘시 측에 유다도 내 호시무역구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³²

유다도는 지린성 훈춘시 사튀즈(沙坨子)와 함경북도 경원군 사이를 흐르는 두만강의 중간에 위치한 하중도(河中島)이다. 위성사진 자료를 보면, 유다도와 중국 사이의 강폭은 매우 좁은 반면에 유다도와 북한 내지(內地)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폭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용이한 지형이다.

이는 북한이 호시무역구의 입지 조건으로 북한 내에 위치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 구조

남북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민간인 출입통제선 등 한반도를 동서

³¹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함경북도 경원군 유다섬리의 일부 지역에 경원경제개발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³² 훈춘시는 2016년 6월 북한 경원군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가 변민호시무역구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1년 이상의 검토 끝에 호시무역 전개가 변경을 안정시키고 쌍방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제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 투자하지는 않고 홍콩 기업과 협력하여 오는 6월경 호시무역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중단데... 북중 접경에 두 번째 ‘호시무역구’ 추진,” 『연합뉴스』, 2018.2.19.

로 가로 지르는 3개의 선이 설정되어 있는 공간 구조이다.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은 1953년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³³에 의해 설정되었다.³⁴ 그리고 민간인 출입통제선(Civilian Access Control Line)은 1954년 2월 3일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작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시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km의 거리를 동서로 잇는 선이었다.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에 대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제2조)” 라고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작전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는 공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북 접경지역이 중국의 변경지역과는 달리 공동시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등 고려할 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가능성 평가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가능성은 크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인프라의 발달이다. 서부 접경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였다. 중국의 호시무역이 발전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시장 접근성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남북 접경의 교통 인프라는 공동시장의 촉진요인에 해당된다.

둘째, 접경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거대한 배후 시장이 있다는 점이다. 서부 접경지역의 경우 서울과 경인권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다. 또한 북한도 개성시 등 주요 도시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 중국의 호시무역 사례를 보면 배후 도시의 존재

³³ 한반도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4개 조 63개 항으로 되어 있다.

³⁴ 정전협정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제1조 제1항)고 되어 있다.

여부가 호시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광시좡족자치구 동싱호시무역구의 경우 중국의 광저우, 선전과 베트남 몽카이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다.

셋째, 남북한 상품의 호환성이다. 남한의 공산품과 북한의 수산물, 토산품 등 1차 상품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공산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접경지역에 공동시장이 운영될 경우 우리 기업이 생산한 공산품이 중국 공산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김정은 체제 들어 개방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집권 다음 해인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전국에 걸쳐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 제한적인 경제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 공동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와 지자체의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이다. 역대 정부는 형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전략 중에는 남북한 ‘하나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호시무역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아래 발전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의지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또한, 지자체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다.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통일경제특구와 평화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등 접경지역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시장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한다. 이러한 장애 요인에 대해 북한 요인, 국내 요인, 국제 요인으로 나누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 요인이다.

남북한 공동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중국과의 호시무역에서 주민 통제의 어려움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남한과의 공동시장 운영에도 비슷한 이유로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공동시장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공동시장을 가급적 북한이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공동시장 운영 초기에는 일반 주민 대신에 무역회사 직원 등 북한 당국이 선정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북한 요인은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에서는 호시무역을 통해 거래할 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0대 말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에 호시무역구를

운영하다가 판매할 상품이 부족하여 도중에 중단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산물과 칠보산 송이버섯과 같은 특산물 위주로 거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요인이다.

남북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작전지역으로 각종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있고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는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남북 공동시장의 성격을 오해하여 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인식할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 접경지역의 공동시장은 기존의 남북 경협과는 성격이 다르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남북 접경지역 공동시장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요인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운영을 제약하는 가장 직접적인 국제 요인은 대북 경제제재이다. 미국의 양자 제재와 유엔의 다자 제재가 북한의 대외교역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농수산물과 토산품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³⁶ 따라서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는 공동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러한 제재 요인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공동시장의 운영 시기를 제재가 완화되어 북한과 최소한 생필품 거래는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된 이후로 하는 등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은 부정적인 요인과 함께 긍정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성사될 가능성이

³⁵ ‘한반도 정전협정문’ 제1조 제10항에는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군인 또는 사민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이를 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³⁶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2017.8.5.)는 북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고, 2397호(2017.12.23.)는 북한의 농산물·식품·토석류까지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있다고 본다. 다만, 공동시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접경지역의 통제와 규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3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

1.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 검토

본 절에서는 중국의 호시무역 모델을 활용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분석한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에 따르면, 중국의 호시무역 모델은 설치 형태에 따라 ① 단방설치형 ② 쌍방설치형 ③ 공동설치형으로 나눌 수 있고, 운영 형태에 따라 ① 무역 단일형 ② 무역, 관광, 생산 복합형 ③ 다국 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호시무역 모델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적용 사례를 개관한 후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단방설치형

단방형은 호시무역구가 중국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중국이 자국 내 변경지역에 호시무역구를 개설한 후 중국 및 상대방 국가의 변경지역 주민들이 호시무역구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상품을 면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호시무역의 초기 형태로 호시무역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중국의 호시무역구는 초기에는 대부분 이와 같은 단방형 모델로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 두만강 하류인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에 개설된 북·중 호시무역구도 단방형이었다. 당시 중국 훈춘 주민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호시무역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은 훈춘에도 원정리와 비슷한 호시무역구를 설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압록강 하류인 단동에 설치되어 있는 호시무역구도 전형적인 단방형 호시무역구이다. 이 호시무역구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 지역에 설치된 호시무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단동 호시무역구는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단방향 호시무역 모델은 공동시장 여건이 덜 성숙된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다. 이는 공동시장 운영에 적극적인 측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상대방은 참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 공동시장을 개설하는 초기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쌍방설치형

쌍방형은 호시무역구를 중국과 상대방 국가의 접경지역에 동시에 설치하는 형태이다. 단방형이 초기의 호시무역 형태라고 한다면, 쌍방형은 양측의 호시무역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여 여건이 성숙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단방형에서 시작하여 쌍방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호시무역구는 헤이룽장성 수이펀허와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 호시무역구이다. 수이펀허 호시무역구는 1997년 단방형으로 시작하여 2년 뒤인 1999년 쌍방형으로 전환되었으며, 만저우리 호시무역구는 1996년 단방형으로 개설된 후 18년 뒤인 2014년 쌍방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훈춘, 등싱 등 대다수의 호시무역구도 단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호시무역구가 단방형에서 쌍방형으로 발전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쌍방형 호시무역 모델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약 2km의 비무장지대가 있고 비무장지대 밖에도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일정한 구간의 완충구역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변경지역과는 달리 쌍방형의 공동시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 구조로 되어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에 쌍방형 공동시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군사적, 정치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개념이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여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쌍방형 모델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부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다. 공동설치형

공동설치형은 중국과 주변국이 국경선이 지나가는 지점에 일정한 공간을 각각 공하여 호시무역구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모델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접경지역인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霍尔果斯國際邊境合作中心)」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2004년 9월 24일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 설치를 합의하였다.³⁷ 그리고 2005년 7월 4일에는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 활동관리 협정」³⁸을 체결하여 설치 및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협력지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이 접한 지역에 무역·경제·투자의 종합체로 공동 설치하며, 상무·상품전시판매·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중국과 카자흐스탄인은 물론, 제3국인도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협력지구의 면적은 2005년에는 중국 3.43km², 카자흐스탄 1.2km² 등 4.63km²였으나, 2006년 12월 20일 체결한 수정 의정서³⁹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면적이 1.85km²로 확대됨에 따라 총면적이 5.28km²가 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호시무역구는 이 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다.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상호 간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양측을 비교적 쉽게 왕래하면서 상품교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설치형 호시무역 모델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공동시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시장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비슷한 규모의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고 군사분계선이 통과하는 지점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구역 내에서는 비교적 쉽게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시장을 설치하는 경우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2005년 체결한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 활동관리 협정」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협정은 총 12개 장 46개 조로 되어 있으며, 지구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³⁷ 합의서의 증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建立‘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的框架协议”이며, 주요 내용은 “쌍방의 국경통과지점인 휘얼귀스국경통상구 인접지역에 협력지구를 설치하며, 지구의 중국 구역은 중국이 관할하고 카자흐스탄 구역은 카자흐스탄이 각각 관할하며 해당국의 법률이 적용되고, 제3국도 투자 및 업무를 할 수 있다” 등이다.

³⁸ 협정의 증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 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活动管理的协定”이다. 주요 내용은 “협력지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합동으로 조성하며, 무역·경제·투자 종합체로 하고,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구역은 국경선에서 적어도 1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전용통로로 연결한다. 총면적은 4.63km², 중국 3.43km², 카자흐스탄 1.2km²이다. 상무교섭, 상품 전시판매, 창고운수, 숙박, 상업서비스, 금융서비스, 국제경제무역회의 등을 한다. 쌍방의 국민은 물론 제3국인도 절차를 거쳐 30일간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다.” 등이다.

³⁹ 의정서의 증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 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活动管理的协定修订议定书”이다.

라. 무역 단일형

무역 단일형 호시무역구는 상품 거래만을 하는 시장으로 호시무역구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1990년대 중반에 성행했던 형태이다. 북한과 중국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년 동안 진행했던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 호시무역구도 무역 단일형이었다. 무역 단일형 모델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상품 호환성이 뚜렷하여 무역 거래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다. 그리고 무역 하나만으로도 공동시장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교역 여건이 좋아야 한다.

무역 단일형 호시무역 모델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중국과 주변국의 경우와는 달리 상품 교역 여건보다는 정치적, 환경적인 변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이다. 따라서 무역 단일형은 남북한 접경지역에는 부적합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무역, 관광, 생산 복합형

중국의 초기 호시무역은 대부분 무역 단일형이었다. 그러나 1996년 「변민호시무역관리방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중국의 호시무역구는 단순히 교역만 하는 곳은 드물고, 대부분 무역과 관광이 결합되거나 무역과 관광 및 생산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이며, 최근에는 무역, 관광, 생산,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수이펀허 호시무역구가 무역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이고, 훈춘 호시무역구는 무역, 관광, 생산이 결합된 모델이다.

복합형 호시무역 모델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명소 관광,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교역보다는 관광 및 생산에 초점을 맞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시장을 관광 및 생산거점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무역, 관광, 생산 복합형 모델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평가된다.

바. 다국 참여형

다국 참여형은 호시무역구 운영에 중국과 주변국 외에 제3국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초기 호시무역은 중국과 주변국만 참여하는 양자형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호시무역이 발전하면서 제3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제3국인이 호시무역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제3국의 기업이 호시무역구 내에 상점을 개설하여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단둥에 설치된 「중·조 호시무역구」가 중국과 북한 외에 한국 등 제3국의 기업도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다국 참여형이다.

〈사진 1〉 단둥호시무역구 북한 거리



자료: 2019년 7월 현장 확인

〈사진 2〉 단둥호시무역구 한국상품전시관



다국 참여형 호시무역 모델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남북한 공동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장기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제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외에 제3국의 국민과 기업도 참여하는 다국 참여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국 참여형은 공동시장 운영 초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호시무역 모델의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시장 모델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중국 호시무역 모델의 남북한 공동시장 적합성

구분	모델	검토
설치 형태	단방설치형	일방만 공동시장을 설치한 형태(초기 모델)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만 공동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합
	쌍방설치형	쌍방이 각각 공동시장을 설치한 형태(발전된 모델) 남북 접경의 공간 구조상 부적합
	공동설치형	쌍방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형태(취업귀스모델) 남북 비무장지대 내 공동시장에 적합
운영 형태	무역 단일형	상품교역만 하는 공동시장(초기 모델) 남북 접경지역에는 성사되기 어려워 부적합
	무역, 관광, 생산 복합형	상품교역과 관광 및 생산을 연결한 형태(발전된 모델) 남북 접경지역 공동시장에 적합
	다국 참여형	당사국 외에 제3국도 공동시장 운영에 참여(지속성 보장) 남북 접경지역처럼 정치적 변수가 많은 곳에 적합

자료: 연구자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2.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대상 지역 검토

남북한 공동시장의 대상 지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지역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선정 및 장단점 검토 기준을 중국의 호시무역 사례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 중국 호시무역의 경우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은 상대방 국가의 태도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북·중 호시무역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공동시장 후보지 선정 및 검토를 할 때 북한의 호응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접근성과 배후 도시 존재 여부이다. 이는 공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배후 도시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호시무역구는 대부분 교통의 요충지인 국경통과지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비교적 큰 배후 도시가 있다. 남북한의 공동시장도 교통과 배후 도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호시무역은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및 생산거점과 연계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관광 및 생산과 연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발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시장 후보지 주변에 관광·생산거점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호시무역은 역사가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지속성이 강한 편이다. 특히 소수민족이 혈연관계로 얽혀 있는 남부 접경지역에서 지속성이 강하다. 남북한 공동시장의 경우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성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동시장 후보지 선정 및 장단점 검토 기준은 ① 북한의 수용 가능성 ② 시장의 접근성 ③ 배후 도시 인접 여부 ④ 관광 및 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 ⑤ 시장의 지속 가능성 등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대상 지역을 비무장지대와 북한 및 남한지역에서 각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하여 장단점을 평가하고, 지역별로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비무장지대(DMZ): 강원도 철원

남북 접경의 비무장지대는 서부, 중부, 동부 등 크게 3곳을 공동시장 대상 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3곳은 저마다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서부 접경의 경우 수도권권과 인접하고 개성공단 등 기존의 남북경제협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⁴⁰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요인이다. 중부 접경은 서부 접경과 비교할 때 접근성과 배후 도시 면에서는 열세이지만 ‘공예 도성 터’와 같은 유망 관광지와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동부 접경에는 금강산 관광지구가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관광거점과 연계한 공동시장을 모색할 수 있다. 이처럼 비무장지대는 각 지역 공히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서부 접경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부 접경인 강원도 철원을 공동시장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서부와 동부 접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내 공동시장은 중부 접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에 대해 위에서 선정한 5개의 기준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⁴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에 남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기구와 평화·생태·문화 관련 기구들을 상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하기로 한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 면에서 철원 비무장지대는 서부나 동부 접경지역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오히려 서부 접경지역의 경우 판문점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내포된 민감한 장소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시장의 순수성 측면에서는 서부 접경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시장의 접근성은 남한에서는 수도권에서 철원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경원선 철도 연결⁴¹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부 접경보다는 못하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교통 사정이 열악하여 평양 등 대도시에서 철원까지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다.

배후 도시의 인접 여부는 철원의 경우 수도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후에 대도시는 없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공히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군급의 중소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 및 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철원 비무장지대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궁예 도성 터’가 있고, 중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오성산 전투 전적지⁴² 등 국내 및 국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많다. 또한, 한반도의 중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인 경원선을 복원할 경우 비무장지대 내 생태·관광 벨트와 연결하여 공동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철원평화산업단지화 연계할 경우 무역, 관광, 생산이 결합된 복합형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지속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 무역만 하는 모델의 경우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생산거점과 연계되어 있고 국제화되어 있을 경우 정치적인 영향이 약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철원 비무장지대 공동시장의 장단점은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⁴¹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연결했던 철도로 1914년 개통되었으나 국토 분단으로 인해 용산에서 백마고지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⁴² 오성산은 6.25전쟁 당시 고지전 전투가 치열했던 곳으로 우리는 저격능선 전투라고 하고, 중국은 상감령 전투라고 한다.

〈표 3〉 철원 비무장지대 공동시장의 장단점

평가 기준	장단점
북한의 수용 가능성	판문점이 있는 서부 접경보다 수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추정
시장의 접근성	남한은 접근성이 있는 편이지만 북한은 접근성 제한
배후 도시 인접 여부	대도시는 멀지만 중소 규모의 배후 도시는 인접
관광·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	관광거점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도 존재
시장의 지속 가능성	관광·생산거점과 연계되고 국제화될 경우 시장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 연구자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철원 비무장지대 공동시장에 적합한 모델은 중국의 「휘얼귀스 국제국경협력지구」이다. 철원 비무장지대 내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비슷한 규모의 부지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시장을 설치하고 군사분계선이 통과하는 지점에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는 공예 도성 터, 오성산 전투전적지, 경원선 철도의 노선 등 주변 관광거점과의 연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원 비무장지대 공동시장의 운영은 무역·관광·생산 기능이 결합되고 제3국도 참여하는 ‘복합형·다국적형’ 모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철원 지역은 배후 도시가 다소 멀기 때문에 단순히 무역만 하는 공동시장으로는 경제성과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역과 관광·생산이 결합된 복합모델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나. 북한지역: 개성공업지구

북한지역의 남북한 공동시장은 북한의 호시무역에 대한 태도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남북 교류협력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할 경우 큰 부담 없이 비교적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공동시장 후보지는 서부 접경의 개성공업지구와 동부 접경의 금강산관광지구가 검토 대상이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공동시장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개성공업지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북한이 중국과의 호시무역에서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호시무역에는 호응하였다는 점과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해 온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하는데 부담이

적을 것이다. 또한, 공업지구 내에는 남북한의 경제협력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경제협력 경험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물론, 실현 가능성도 큰 지역이라 할 것이다.

시장 접근성과 배후 도시 인접성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가 운영되면서 남북한 공히 개성공업지구로 통하는 교통망이 개선되었고,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북한도 개성시 등 비교적 큰 도시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후 도시의 인접성도 장점이다.

관광 및 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도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성격을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라고 정의(법 제1조)하고 있어 무역·관광·생산의 복합형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동안 개성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 적이 있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년 동안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개성공업지구 공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쉽게 중단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가 장기간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장소였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시장으로서의 상징성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단점이다.

개성공업지구 공동시장의 장단점은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개성공업지구 공동시장의 장단점

평가 기준	장단점
북한의 수용 가능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
시장의 접근성	남북한 공히 시장의 접근성이 양호
배후 도시 인접여부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개성, 해주 등 규모가 큰 배후 도시들이 인접
관광·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	관광 및 생산거점과의 연계 여건 구비
시장의 지속 가능성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약한 것이 단점

자료: 연구자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개성공업지구 공동시장의 모델은 중국 훈춘 호시무역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훈춘 호시무역구는 2001년 「훈춘 변경경제합작구」⁴³ 내에 수출가공구와 함께 설치되었다. 개성공업지구 공동시장도 이미 가동 중인 공업지구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훈춘 호시무역구와 비슷한 형태이다. 현재 훈춘은 변경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호시무역구 등 ‘3구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공동시장도 훈춘 사례와 같이 기존에 운영 중인 개성공업지구 내에 별도의 구역을 조성하여 무역과 관광 및 생산거점이 연계된 복합형 모델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남한지역: 인천 교동도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계에서는 남한 접경지역에 공동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접경지역에 공동시장을 건설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남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장소로는 육지 접경보다는 육지와는 차단이 용이한 접경지역 도서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중국과는 거의 붙어 있고 북한과는 차단되는 지형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함경북도 경원군 유다도에 호시무역구 개설을 먼저 제안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북 접경지역에는 ‘유다도’와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차선의 장소로 교동도, 석모도, 강화도 등 서부 접경지역의 도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교동도를 들 수 있다.

교동도는 면적 46.3km²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북한과도 3.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최소 침해원칙에도 부합⁴⁵ 하기 때

〈그림 1〉 교동도 위치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44

⁴³ 훈춘 변경경제합작구는 1992년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치되었다.

⁴⁴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⁴⁵ 강민조·임용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남북 공동시장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2018), pp. 45~46.

문에 북한이 받아들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시장의 접근성은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감안할 때 육로를 통한 접근은 서부 접경의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교동도는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 외에 소형 선박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동도와 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부나 동부 접경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배후 도시 면에서는 교동도도 크게 보면 수도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북한의 개성시와도 비교적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중부나 동부 접경지역에 비해 배후 도시의 인접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교동도는 관광 및 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 교동도 ‘남북평화산업단지’⁴⁶, ‘통일경제 시범지 조성사업’⁴⁷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다국 참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지역에 설치되는 공동시장이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국 참여형 방식은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교동도 공동시장의 장단점은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 교동도 공동시장의 장단점

평가 기준	장단점
북한의 수용 가능성	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장점
시장의 접근성	중부 및 동부 접경에 비해 시장의 접근성이 양호
배후 도시 인접여부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개성, 해주 등 규모가 큰 배후 도시들이 인접
관광·생산거점과의 연계 가능성	지자체의 강화·교동도 개발계획 등과 연계 가능
시장의 지속 가능성	서해안에 접해 있어 중국 등 제3국의 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국 참여형이 될 경우 지속 가능성 향상

자료: 연구자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⁴⁶ “인천시, 교동도에 ‘남북 평화산업단지’ 추진,” 『한국경제』, 2018.3.26.

⁴⁷ “대북 접경 평화자산 ‘강화교동도 통일경제 시범지 등 평화기반 조성방향 나왔다,’” 『국민일보』, 2019.2.19.

교동도의 공동시장 형태는 훈춘이나 단둥 호시무역구 처럼 무역, 관광, 생산이 결합되고 제3국도 참여하는 ‘복합형·다국적형’ 모델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동도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북한이 과거 중국과의 호시무역에서 수산물을 주로 판매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교동도 공동시장을 북한의 수산물과 남한의 공산품을 거래하는 장소로 특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호시무역 제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만 운영하는 단방설치형, 남북한이 합의하여 함께 설치하는 공동설치형, 제3국의 국민과 기업도 참여하는 다국 참여형, 무역·관광·생산이 결합된 복합형 등이며, 공동설치형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시장에 적합하고, 다국 참여형은 시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설치 장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비무장지대는 철원, 북한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남한지역은 인천 교동도가 바람직하며, 이들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시장 모델은 개성공업지구는 ‘복합형’, 철원과 교동도는 ‘복합형·다국적형’으로 검토되었다.

남북한의 공동시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진행되는 호시무역에는 소극적이지만 북한 내 호시무역에는 참여한 적이 있고 북한 주민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는 호시무역구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동시장의 위치를 북한이 수용 가능한 곳으로 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도 초기에는 일반 주민보다는 무역회사 직원 등 북한이 선정한 사람들로 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감안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공동시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 또는 완화되는 시점에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국 참여형 모델을 지향하고, 관광 및 생산거점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호시무역 모델을 남북 접경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지만, 남북 공동시장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모델과 후보지를 제안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공동시장 후보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공동시장 운영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제출: 11월 8일 ■ 심사: 11월 11일 ■ 채택: 11월 27일

참고문헌

1. 논문

- 강민조·임용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남북 공동시장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2018.
- 김영봉. “한국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 2017.
- 김형수·이필구. “마르티네스의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2017.
- 임을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DMZ·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2018.
- 妍丁. “在珲春看中朝互市贸易.” 『综合性双』. 1998年 第2期(總 第39期).
- 徐志尧. “中国边民互市贸易比较.” 『经济研究参考』. 2002年 第54期(總 第1630期), 黑河市政府 研究室.

2. 기타자료

- 『연합뉴스』.
『국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정전협정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内蒙古自治区边民互市贸易区管理办法. 内蒙自治区. 2018.
丹东国门湾边民互市贸易区管理暂行办法. 丹东市. 2017.
东兴边民互市贸易区管理暂行办法. 东兴市. 2014.

边境小额贸易暂行管理办法. 对外经济贸易部. 1984.
 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 海关总署·对外贸易经济合作部. 1996.
 绥芬河中俄互市贸易区管理办法. 绥芬河市. 2018.
 新疆维吾尔自治区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 新疆维吾尔自治区. 2013.
 珲春中俄互市贸易区管理办法. 吉林省. 2004.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建立‘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的框架协议.
 2004.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活动管理的协定.
 2005.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活动管理的协定
 修订议定书. 2006.
 중국 국무원(中国 政府网) <<http://www.gov.cn/>>.
 중국 상무부(中国 商务部) <<http://www.mofcom.gov.cn/>>.
 중국 해관총서(中国 海关总署) <<http://www.customs.gov.cn/>>.
 단둥시 인민정부(丹东市 人民政府) <<http://www.dandong.gov.cn/>>.
 훈춘시 인민정부(珲春市 人民政府) <<http://www.gov.cn/>>.
 바이두백과사전 <<https://baike.baidu.com/>>.

Review of the Common Market Model and Target Area of the Border Region

Oh Soo Dae and Lee Su Ryong

This study examines the common market model and the target areas of the border reg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utilizing the Chinese Hoshi Trading System.

After revis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mmon market model suitable for the two Koreas are the one-sided installation type of South or North Korea, the joint installation type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multi-participation type, the complex type that combines trade, tourism, and production, and a few other types. The co-installation model is suitable for the common market in the DMZ while the multi-participation type was evaluated as a useful model for ensuring market sustainability.

Conside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and the acceptability of North Korea, it is desirable to set up the common market in the border areas of the two Koreas, the demilitarized zone in Cheorwo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in the North, and Incheon Gyodong-do in the South.

The key to the common market between the two Koreas is North Korea's enthusiasm for the market plan. North Korea has shown a two-faced attitude by being passive in the Hoshi trade in China, but showing moderate participation in the Hoshi trade in North Korea, and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a Hoshi Trade Zone in areas where North Korea can easily regulate its citiz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North Korea's participation by taking their stance into account, such as making the location of the common market acceptable to North Korea.

The common market of the two Koreas should be promoted to be helpful to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people in a practical sense amidst the approval of the people, and it is most desirable to have the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for the cause. In ad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mmon market, it is necessary to pursue a multi-national participatory model in which neighboring countries participate and to invigorate the common market by linking it to tourism and production bases.

Key Words: Joint market model, Hoshi trade, border area, Demilitarized Zon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